

[정보·과학]

이승헌의 뇌과학칼럼



뇌호흡은 평화를 위한 호흡법

공산권이 붕괴되자 21세기에는 전쟁없는 평화의 시대가 올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대했다. 21세기도 벌써 6년째 접어든 지금, 세계는 과연 평화로운가?

“여러분은 평화롭습니까?” 필자가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지만, 정작 미국인들은 평화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평화롭지 못하다면 누가 평화롭다는 말인가.

인류는 오랫동안 평화를 추구해왔지만, 아직도 지구에 평화를 실현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평화를 주로 정치나 종교의 문제로 다루어왔기 때문이다. 평화는 개인이 고민하기에는 너무나 큰 주제이고 개인이 노력한다고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나 종교를 중심으로 한 평화는 평화가 아니라 가장 큰 분쟁의 불씨가 되어왔음을 인류 역사를 통해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평화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구 평화의 열쇠는 사람에게 있다. 평화는 평화에 대해 생각하거나 평화를 위해 기도를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화는 누구에게 배우거나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견해 내 삶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하고 지구를 사랑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 평화의 전문가이다. 바로 '내'가 평화를 실현할 주체인 것이다.

우리가 자신 안에 있는 평화의 본성을 발견하고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가장 빠른 길은 자신의 뇌를 깨우고, 뇌를 대화하고, 뇌를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발한 수련법이 바로 뇌호흡이다. 뇌호흡은 평화를 위한 호흡법인 것이다. 호흡이 생명현상 고유의 리듬이듯 평화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신 안에 있는 무한한 평화의 힘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자신도 평화로울 수 없고 다른 사람에게 평화를 전할 수도 없다. 뇌호흡은 그 평화의 힘을 체험하

게 해준다.

인간의 가치와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뇌와 그 속의 정보이다. 중요한 것은 '그 정보가 평화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가'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뇌, 부정적인 정보가 지배적인 뇌는 결코 평화를 실현할 수 없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 그

평화적이고 창조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회와 지구가 치유되는 것

러한 정보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정보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관념과 감정, 사상에 의해 움직이는 정보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그 것의 주인이 됨으로써 삶의 목적을 위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뇌호흡을 통해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다.

뇌호흡은 뇌에 맑고 밝은 에너지와 좋은 정보

를 공급해 평화로운 뇌를 만든다. 평화로운 뇌는 자신의 본성이 평화임을 자각하고, 평화를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평화적인 뇌는 평화를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밝고 긍정적인 정보를 선택한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생산적이고 창조적으로 일한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궁극적으로 평화임을 알게 되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 영적인 완성의 길임을 알게 된다. 바로 파워있는 뇌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두 사람이 이렇게 파워 있는 뇌가 된다고 해서 평화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평화가 대중화되고 일반적인 상식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뇌호흡을 통해 평화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뇌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질 때, 사회와 지구가 치유되고 지구평화가 실현된다.

재삼 강조하지만 인류가 어떤 뇌를 가지고 있는가가 바로 평화의 열쇠이다. 파워있는 뇌가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자신의 뇌를 깨우고 대화해보기 바란다. 내 뇌는 평화적인 뇌인가? 진정한 평화는 뇌에 달려 있다.

(국제평화대학원대학교 총장, 한국뇌과학연구원 원장)

이통업계 월드컵 '딜레마'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이통통신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월드컵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각종 단체들의 행사에 월드컵 협조 요청이 줄을 잇고 있지만 2002년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탓이다.

대표적인 것이 응원 티셔츠. 대한민국 대표팀과 하나 되는 축구 스타일은 뛰니뛰니해도 붉은 색 티셔츠다. 4년전에는 '비 더 레드(BE THE REDS)'라고 적힌 빨간색 '박스T' 한 장이면 됐다. 2천만장이 넘게 팔렸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다.

붉은 악마는 2002년 한일월드컵 당시 이 빨간색 응원복을 공식 응원복으로 사용했는데 거리에서 몇 천원만 주면 살 수 있는 점 때문에 SK 텔레콤 서브마케팅본부의 경우 홍보 마케팅을 위해 4년전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10만장을 무료로 나눠줬을 정도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SK텔레콤의 경우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총장로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보낸 응원 메시지를 붉은 응원 리본에 적는 수준의 행사를 기획할 뿐이다. '매장을 찾으면 무료로 티셔츠를 나눠주겠다'라는 생각은 버려지게 됐다.

2002년 월드컵 때는 'BE THE REDS'라는 붉은 악마 슬로건은 상표권이 등록되지 않았으나 2006년 월드컵 슬로건 '레드 그 투게더(RED, GO TOGETHER)'는 등록이 돼 있다.

붉은 악마 슬로건인 'RED, GO TOGETHER'의 사용권을 갖고 있는 ㈜데이터이치하우스의 허락 없이 응원복을 제작, 판매하게 되면 불법이다. 그나마 가격도 거리에서 몇 천원이면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2만원대.

무작정 무료로 티셔츠를 나눠주기에 버거운 것이 현실. SK텔레콤이 4년전과 달리 응원 티셔츠를 무료로 나눠주지 못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붉은 악마 공식 후원사인 KTF도 사정은 비슷하다. 4년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인 탓에 광주마케팅본부의 경우 4월 이후 1천여벌만 주문, 광주·전남·북 등 대리점에 배부하고 일부 고객들에게 나눠준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을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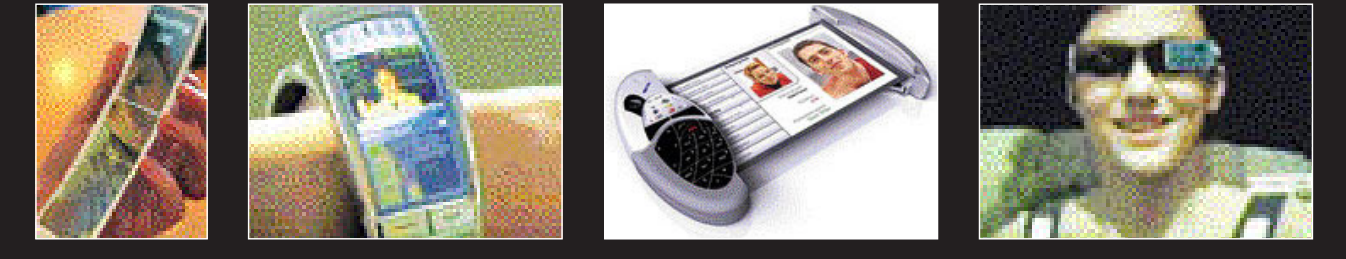
이 때문에 호남대 인문사회대와 관광경영대 학생들의 오는 6월 20부터 열리는 국토 순례행사 및 광주월드컵 경기장의 응원전과 광주대 총학생회의 월드컵 응원전 협조 요청에 난감해하고 있다.

'축구사랑 요금제'와 축구응원 전용폰인 '축구사랑 휴대폰' 4종과 붉은 악마 공식 응원복 한 벌이 포함된 축구사랑 팩을 출시한 정도다.

한편 ㈜데이터이치하우스측은 4월 이후로 붉은 악마의 공식 응원복이 이미 50만 장의 티셔츠가 팔렸고, 30만장의 주문이 밀려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휴대폰의 진화 끝은 어디일까



멀티 기능·화상 통화 등 웬만한 노트북 능가할 정도로 발전

휴대전화, 진화의 끝은 어디일까. 단순한 통화 기기로서의 휴대전화는 옛날 얘기다. 디카(디지털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MP3플레이어와 게임에 지상과 방송 시청까지 통화와 상관없는 멀티 미디어 기능에다 화상 통화까지 가능해 지는 등 눈부시게 진화하고 있다.

휴대전화, 더 낫게 = 최근 휴대전화의 트렌드는 두께를 줄이는 슬림화다. 면접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7.9mm 두께의 초슬

림 휴대전화를 만지려다 잘 잡지 않아 당황하는 KTF의 광고 내용이나 삼성전자의 6.9mm 두께의 휴대전화 개발 등 얇고 늘어난 '슬림' 열풍이다.

그동안 슬라이드 방식으로 세계에서 가장 얇은 휴대전화인 '스킨(SCH-V890/SPH-V8900·13.8mm)'폰의 경우 출시 3주만에 하루 실 개통수 최고 3천300대를 돌파했고, 먼도날처럼 얇다는 뜻에서 이름을 딴 모토로라의 '레이저(RAZR)', 16.5mm·88g에 불과한 초슬림폰의 후속 모델도 나왔다.

기능은 더 많고 똑똑해지고 = 통화는 기본이고, 문자 메시지와 동영상 주고 받는 것과 디카 기능은 휴대전화의 필수다.

생색내기 수준도 아니다. 500만 화소가 넘어 휴대전화인 동시에 디지털 카메라다.

또 지상과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DMB 기능을 갖췄고 최근에는 얼굴을 보며 통화하는 화상 이동전화 시대도 열렸다.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시작한 3.5세대 이동통신 서비스(HSDPA·고속하향패킷전송)가 그것. 이론상으로는 초당 5.76Mbps(업로드 기준)~14.4Mbps의 전송 속도를 낼 수 있다.

동영상 음악을 내려받는 속도는 기존 2세대(디지털 휴대전화) 휴대전화 보다 4배, 3세대 전화(CDMA 2000 1x-EVDO)보다 1.8배 빠르다.

휴대전화 벨소리 리듬에 맞춰 휴대전화가 진동하는 '진동벨'서비스가 나오는가 하면 전화번호 검색도 휴대폰 무선인터넷으로 할 수 있고, 가볼 만한 여행지 소개부터 가는 길과 빠른 길 안내 등 교통상황과 편의시설까지 휴대전화 속에 들어있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제 휴대폰은 웬만한 노트북을 능가할 정도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p>토스키</p> <p>011-812-1381</p> <p>무모임/차리할부</p>	<p>이정희</p> <p>011-812-1381</p> <p>무모임/차리할부</p>	<p>송상근</p> <p>011-812-1381</p> <p>무모임/차리할부</p>	<p>강정경</p> <p>011-812-1381</p> <p>무모임/차리할부</p>	<p>이정희</p> <p>011-812-1381</p> <p>무모임/차리할부</p>	<p>이정희</p> <p>011-812-1381</p> <p>무모임/차리할부</p>
---	---	---	---	---	---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전국 1위 합격률 1위

361-8111

지붕·옥상을라브 우리만족 망수전문!

지붕 방수도 되고 단열도 되는 최첨단 신소재

(주)태양주택개발 | TEL 10821 262-0450

순간가열식 전기보일러

30% 절전

삼우상사

전립선 J2V

대진바이오테크닉 호남지사 ☎1588-3871